



Received: 2026/05/24
Revised: 2026/06/05
Accepted: 2026/06/22
Published: 2026/06/30

***Corresponding Author:**

In-Hyeok Yu

32801, Unit 111, No. 1003, 98 Sindoan 2-gil,
Sindoan-myeon, Gyeryong-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dlsgr123456@naver.com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해군 전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해양기반 전략무기를 통해 핵 2격능력 확보, 핵강압 신뢰성 제고, 체제 결속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무기가 전력화될 경우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한국 해군의 작전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북한 해군전략은 핵전략과 결합된 해양거부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단기적으로 SLBM과 핵순항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어뢰와 핵추진잠수함에 대비한 감시·방어·대잠전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intent and threat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aval strategic weapons and proposes response measures for the ROK Navy. North Korea is assessed to be pursuing sea-based strategic weapons to secure a nuclear second-strike capability, enhance the credibility of nuclear coercion, and reinforce regime legitimacy. If these weapons become operational, they could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increase the operational burden on the ROK Navy. Moreover, North Korean naval strategy may evolve toward a sea denial strategy integrated with nuclear strategy. Accordingly, the ROK Navy should strengthen its near-term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SLBMs and nuclear cruise missiles, while developing mid- to long-term surveillance, defense, and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ies against nuclear torpedoe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Keywords

북한 해군(North Korea Navy),
전략무기(Strategic Weapons), 억제(Deterrence),
강압(Coercion), 해양거부(Sea Denial),
한국 해군(ROK Navy)

북한 해군 전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도와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의 위협과 북한 해군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Strategic Intent of North Korea's Naval Strategic Weapon Development and ROK Navy's Response: Focusing on Strategic and Operational Threats and Potenti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Naval Strategy

유인혁*

해군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In-Hyeok Yu*

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1. 서론

북한의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조직으로서 주요 정책들은 당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결정 및 추진된다. 이러한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대회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주요 정책노선을 발표해 왔다([1], pp. 51-55). 북한은 2021년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핵무기의 소형화·전술무기화, 극초음속무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공식화하였다[2]. 이러한 흐름은 2026년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운용체계 개선, 재래식 전력 현대화, 해군의 핵무장화, 새로운 비밀병기 및 특수전략자산 개발, 기존 개발된 무기들의 전진배치 등의 과업을 제시하였다([3], p. 1). 특히,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 수량 증대와 핵운용수단 및 활용공간의 확장을

강조하였으며,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4].

한편, 북한 해군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형 해양전략의 특성을 보이며, 소형 고속정, 상륙정, 잠수정 등을 보유하며 연안방어형 소함대 건설을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5년 최현호 진수식에서는 ‘원양작전능력 보유’를[5], 강건호 진수식에서는 ‘해군의 황금기’를 언급하며 매년 5,000톤급 구축함을 2척씩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6]. 이와 더불어 2021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SLBM, 해일(수중핵어뢰), 핵 순항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 해상기반 전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통해 북한 해군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해군의 전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 해군 전략무기 개발이 완성되어 전력화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의 위협과 북한 해군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한국 해군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강압(Coercion)과 억제(Deterrence)

강압(coercion)은 현상에 불만을 품은 도전자가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원하는 바 또는 이익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이며,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강압을 가하는 도전자는 중도에 단념할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수단을 쓰는 등 확전(escalation)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다([7], p. 26).

반대로 억제(deterrence)는 도전자의 강압과 확전 의지를 단념시키고 안정(stability)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이며, 방어자는 도전국의 강압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강압행동의 실패 이후에는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의 강압을 억제한다([7], p. 27). 이러한 억제의 개념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응징적 억제, 거부적 억제, 확장억제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정리하면 강압은 현상변경을, 억제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개념이지만 한 국가는 사안과 상대국에 따라 도전자가 될 수도, 방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강압 혹은 억제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2 해양통제(Sea Control)와 해양거부(Sea Denial)

해양통제(sea control)란 아군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기 및 해역에서 적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또는 통제하는 상태이다([8], p. 401).

해양거부(sea denial)는 아군의 해양통제 노력은 최소한으로 시도하면서 적의 해양사용 거부에 중점을 두는 방어적인 개념으로 19세기 프랑스 소장학파와 구소련 등 대륙국가의 전략사상이다([9], p. 6). 북한은 지속적으로 구소련과 군사교류를 시행했으며, 북한의 해양전략 형성에 있어 구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3 분석의 틀(Framework of Analysis)

본 연구는 북한 해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 향상이나 단순한 해군력 증강으로만 보지 않고, 북한의 핵전략과 해군전략이 상호 결합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핵전략 이론인 강압과 억제, 해양전략 이론인 해양통제와 해양거부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 그리고 해군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3. 북한 해군 전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도

3.1 핵 2격능력을 통한 대미 핵억제능력 확보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북한의 해군 전략무기 개발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핵 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확보함으로써 핵 억제 구조를 완성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상·수중기반 발사 플랫폼은 지상발사 플랫폼이 갖는 선제타격 취약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SLBM과 해상기반 핵무기는 발사위치가 시점을 은폐할 수 있어, 상대의 선제타격 이후에도 보복할 수 있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을 제공하며, 북한이 주장해 온 핵무력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armed state) 지위

를 인정받으려는 장기적 전략과도 연계된다. 요컨대, 북한의 해군 전략무기 개발은 핵 2격능력을 완성함으로써 대미 핵 억제 구조를 안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전술핵 능력과 투발수단 다변화를 통한 핵강압 신뢰성 제고

북한은 최근 핵 순항미사일 ‘화살’과 북한 전술핵 탄두 ‘화산’ 그리고 수중핵무기 ‘해일’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핵무기를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사용가능한 군사적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핵강압 이론에 따르면, 강압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핵 사용 가능성이 ‘믿을만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7], p. 41). 또한, 투발수단의 다변화는 상대의 방어 부담을 증대시킨다. 해상·수중발사 플랫폼은 지상발사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사징후의 탐지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북한이 투발수단을 다양화하는 경우 핵 사용의 신뢰성은 기술적 완성도와 무관하게 정치·심리적 차원에서 증폭될 수 있다. 북한의 해군 전략무기 개발은 핵무기의 실제 사용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위기국면에서 핵강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계산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3.3 국내 정치적 정당성 확보 및 체제 결속 강화

김정은은 최현호·강건호 진수식과 군수공장 현지 지도 등을 통해 해군력 증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해군의 황금기’와 ‘국방력의 질적 도약’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대형 수상함, 핵추진 잠수함의 해군 전력은 특성상 시각적·상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북한 주민과 지도부 및 군부에게 직관적으로 경제난과 국제제재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군력 강화는 김정은이 ‘소함대’를 추구했던 김일성·김정일과 차별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해군 전략무기 개발은 김정은 체제의 권위 강화와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해군 전략무기 개발은 핵 2격능력 완성을 통한 대미 핵 억제능력 확보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전술핵과 투발수단 다변화를 통한 핵강압 신뢰성 제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의 위협과 북한 해군 전략의 변화가능성

4.1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의 위협

북한 해군 전략무기가 완성 및 전력화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이 제2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은 “서울을 위해 LA나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확장억제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강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북한이 실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한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한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에게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작전적 차원에서는 먼저, SLBM·핵순항미사일과 같은 해군 전략무기는 발사징후 탐지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조기경보를 어렵게 하며, 작전지휘부의 의사결정 시간에 큰 압박을 준다. 특히, 핵·비핵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오판과 과잉대응의 위험을 높이며, 위기안정(crisis stability)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및 핵어뢰 운용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미군의 증원전력 배치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항모강습단 등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존재 자체로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는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해군 작전 전반에 작전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SLBM 위협은 대잠작전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핵어뢰는 항만 방호를, 핵순항미사일은 해상미사일 방어를 요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투입해야 할 자원과 전력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더 나아가 핵추진잠수함은 평시에도 운용될 수 있으므로 상시

적으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작전지속성과 전력운용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4.2 북한 해군 전략의 변화 추정

북한의 국가목표는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 등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전략으로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배합전은 유사시 전후방에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켜 남한 내 혼란과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강요함으로써 신속히 군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10], pp. 86-90).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해군전략은 전면전 발발 시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제2전선을 형성하고, 해양거부를 통해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개념에 기반해 왔다고 평가되어 왔다([10], pp. 96-109). 그러나, 최근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국가론’, ‘영토 완전(territorial integrity)’[11] 등의 표현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상륙전력이 아닌 대형 수상함, 잠수함 등의 전력건설 방향을 고려할 때, 전면전을 통한 적극적 공세 의지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체제는 육로무역 비중이 대부분으로([12], pp. 155-157) 해상교통로 보호 등 해양통제를 위해 위와 같은 대형 수상함을 건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불어 북한 해군 전략무기가 완성 및 전력화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위협평가를 바탕으로 미국의 전략기획 절차를 적용하여 북한 해군전략의 변화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13], pp. A1-A11).

먼저 전략은 목표(ends), 방법(ways), 수단(means)의 3요소로 설명된다. 이는 미 육군대학의 Arthur F. Lykke Jr.가 군사전략을 설명하며 제시한 분석의 틀이며, 그는 전략을 목표-방법-수단의 균형 문제로 보았고 이를 세 다리 의자에 비유하며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략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그 불균형이 곧 위험(risk)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14], pp. 183-186). 이에 따라 북한 해군전략의 목표(ends)([15], p. 101)는 해양거부를 통해 지휘부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방법(ways)은 해상기반 핵

위협과 전략무기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한미동맹의 전쟁 및 작전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것, 수단(means)은 대형 수상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해군전략은 체제보장을 위해 전략무기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전쟁지속성을 약화시켜 해양거부를 달성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해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본 연구는 3장에서 북한 해군 전략무기가 완성 및 전력화되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작전적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 해군전략의 변화를 추정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전략무기가 완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순항미사일과 SLBM 능력은 조기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핵어뢰와 핵추진잠수함은 기술적 난이도와 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16]. 따라서 해군의 대응방안 또한 즉각적 대응, 중·장기적인 대응 두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5.1 즉각적인 대응: SLBM과 핵순항미사일

SLBM과 핵순항미사일은 발사징후 탐지가 어렵고, 핵·비핵 여부를 신속히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작전 지휘부의 의사결정 시간을 압박하고 위기관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SLBM의 경우 잠수함의 은밀성과 기동성으로 인해 발사 위치와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 핵순항미사일 역시 저고도 비행과 우회기동을 통해 아촉 자산에 탐지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므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SLBM·핵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력이 출항했다면,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하여 SLBM 발사 징후와 핵순항미사일 운용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해야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 과정에 있어 해군의 해상기반 3축체계가 중심이 될 것이다. Kill chain을 통해 발사 전 선제타격으로 제압해야겠지만, 미사일 발사가 탐지되었다면 KAMD

를 통해 요격에 집중하고, 여러 발이 동시에 발사되었다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표적을 요격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에는 KMPR 자산을 통해 바로 보복하여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기반하여 핵보복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재는 해군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격은 패트리엇 미사일 등 육군 전력을 활용해야 하며, 향후 SM-3, SM-6와 같은 미사일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5.2 중·장기적 대응: 해일 및 핵잠수함

해일 및 핵추진잠수함은 성능과 운용개념이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다수의 자료들은 북한이 공개한 시험·선전 자료만으로는 해당 체계의 실제 운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17]. 따라서 해군의 중·장기적 대응은 각 무기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먼저, 핵어뢰의 경우 해일을 일으켜 항만기능의 마비와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함정의 파괴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항만방호와 수중 접근로 차단, 피해 최소화 및 복구능력 강화가 중요하다. 항만 및 주요 해군기지 방호의 임무 중요도를 격상해야 하며, 출·입항 수로와 항구 인근에 대한 수중감시체계를 설치하여 상시 수중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 관리와 신속 복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핵어뢰 위협의 핵심은 항만 접근과 전력 전개의 심리적·작전적 위축을 유발하는 데 있으므로 항만기능 일부가 제한되더라도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항만 활용, 전력 분산, 복구절차를 포함한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응절차를 작성·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가 탑재된 핵잠수함의 경우 핵 2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억제제와 보복 측면에서 전략적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모든 감시자산을 협조·활용해 핵잠수함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최우선 순위로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해군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기간 연속적으로 북한 핵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상초계기 등의 대잠전력과 운용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지원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3 해군차원의 대응 한계와 국가차원의 보완과제

북한의 핵 2격능력 완성에 따른 전략적 위협은 해군차원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해군의 감시·타격·방어능력 강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핵 억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우선적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면, 독자적 핵무기 또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대안적 선택지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북한 해군의 전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전략무기가 완성되어 전력화되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의 위협과 북한 해군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해군 차원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다만, 북한 해군이 개발 중인 전략무기는 핵과 연계하여 운용되므로 해군 차원에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보완할 과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해군 전략무기를 핵억제 구조와 해군전략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해군의 대응 방향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북한 전략무기의 실제 기술수준과 운용개념이 공개자료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해군 전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 작전운용 가능성, 한미 연합 해상작전 및 확장억제 체계와의 연계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통일부, 북한 이해, 2026.
- [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제8/9차 당대회.
https://nsp.nanet.go.kr (accessed 2026.05.24.)
- [3] 홍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4): 군사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15, 2026, pp. 1-9.
- [4] 장용훈, '김정은, 핵무기 늘리고 수중발사 ICBM · 위성공격 특수자산 개발,' 연합뉴스, 2026.02.26.
- [5] 안윤석, '北,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원양작전함대 건설”,' SPN 서울평양뉴스, 2025.04.26.
- [6] 박정환, '김정은 “해군의 황금기” 공식화, 매년 5,000톤급 구축함 2척씩 건조 선언,' 글로벌이코노믹, 2025.06.14.
- [7] Manseok Lee, Sunhong Kim, & Hyeonpil Ham, 'North Korea's Nuclear Coercion Strategy and South Korea's Countervailing Op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9, NO. 3, 2023, pp. 25-56.
- [8] 합동참모본부, 합동 ·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4.
- [9] Young Chan Choi, 'Analysis of the Russian-Ukraine War: Naval Power Use of Russia and Implications,' Review of Korean Military Studies, VOL.12, NO. 2, 2023, pp. 3-30.
- [10] Dong Chan Lee, 'A Study on Military Strategy and Naval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Unification Strategy, VOL. 21, NO. 4, 2021, pp. 79-115.
- [11] 김창수, '김정은이 말한 “영토 평정”에 숨겨진 두 가지 의도,' 시사IN, 2024.03.08.
- [12] Taehwang Kim, 'Border Trade Analysi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Policy Sugges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VOL.17, NO.4, 2016, pp. 153-173.
- [13]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Strategic Planning System, CJCSI 3100.01F, 2024.
- [14] Arthur F. Lykke Jr., 'Defining Military Strategy,'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1997, pp. 183-186.
- [15] Chang-Hee Park, On Military Strategy, Planetmedia, 2013.
- [16] 양욱,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 이슈브리프, 2023.12.28.
- [17] 뉴시스, '軍, 북한 핵어뢰 해일 시험에 “실체 과장·조작 가능성 무계”,' 2023.03.28.